



시
한
상
하
원
안
원
공

사
총
제
六
八
호

四
二
九
三
年
四
二
七
日

수
석
국
무
위
원

민
의
원
의
장
위
하

자
임
의
총
무
의
관
한
전

수
제
의
전
별
지
와
같은
이
총
무
하
나
이
다

사본

나. 리승만은 국회의 결의를
존중하여 대통령직을 사
임하고 물러앉아 국민의 한
사람으로 나의 여생을 국가
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고자
하는 바이다.

광기 四二九三년 四월 二七일

리 승 만

4월 27일

나 리승만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대통령의 직을 사임하고
물너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
위하여 바치고저 하는 바이다.